

여수출신 박수관씨 장학금 5천만원



여수 출신의 기업인이 수십 년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여수 남면 출신의 동원중공업·영창신기술 박수관 회장.

박 회장은 지난달 25일 여수 시청 회의실에서 새 학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72명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서 그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설에도 한파와 구역적으로 힘든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쌀을 내놓기도 했다.

박 회장은 1986년 (주)영창산업을 설립한 이후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지역과 고향 발전에 헌신하며, 양로원, 재활원 등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만도 120억 여원에 이른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배상현 교수 국가유공자 심사위원 위촉



배상현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유공자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국가유공자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에 추천하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장관표창 등 국가 유공자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일을 맡는다.

신영무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 선출



신영무(67·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대한변협 회장직에 4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신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를 지냈고 현대자동차와 LG화학해상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변협이 주관해 변호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청년변호사 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한국에 아시아 중재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장 장국찬 ▲전북인력개발원장 김종택
◆동신대학교
▲교무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정호영 ▲입학교류처장 이주희 ▲대외협력실장 송경웅 ▲교무부처장 겸 교양교육부처장 정인주 ▲입학부처장 전진 ▲문화박물관장 이상필 ▲국제교류협력 1실장 김희성 ▲국제교류협력 2실장 오성록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센터장 겸 교수지원실장 이성주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실장 권재환 ▲출판부처장 김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매체 제작실장 김원철

“작품속에서 차별의 아픔 위로받았어요”

다문화여성들과 키스해링전 관람 입양아 출신 엘링슨 변호사

지난 27일 막을 내린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 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광주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 등 40명이 모처럼 전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12년이 넘었지만 미술관 방문은 처음이라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메리안(45)은 키스 해링의 작품들이 그저 신기해 보였다.

사실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미술관 나들이는 평소 접하기 힘든 호사(?)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미술관 나들이는 다문화포럼(대표 이법관)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체계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광주 북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회원 40명이 참가했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의 예술세계를 만끽하는 등 뜻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미술관 나들이가 특별했던 것은 한국계 미국인 리사 엘링슨(28·국제한국어인협회 고문 변호사)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생후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학창시절 아시아계라는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편견과 차별을 겪었다. 생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캔버스에 담아냈던 키스 해링의 전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마음이 통했다.

이날 리사 엘링슨은 입양아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당당한 성공가까이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엘링슨은 “정확히 몇 살 때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린 시절 미국인 양부모에게 ‘왜 나는 외모가 다르냐’며 자주 물어봤었다”면서 “특히 사춘기 시절 정체

성 혼란으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내게 ‘너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라며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한번쯤 나와 같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나의 양부모님들이 의 기소침해 있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것처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과 외모나 ‘배경’이 다르다는 게 열등감이 아닌 혜택이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세요.”

미네소타 주 성 캐더린 대학에서 불문학과 음악을 전공한 그는 토마스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7년 전주에서 친부모를 만난 그는 지난해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서울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인양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제한국어인양인협회 고문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애인 올림픽 출전 꿈...내게 희망의 빛”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입학 시각장애인 조민지씨

“눈이 잘 안보여도 춤을 잘 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병이 깊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돕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2011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조선대 교정에서 만난 행정복지학부 새내기 조민지(20)씨는 시각장애에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단차게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려한 제2댄서를 꿈꾸던 광주여대 무용과 학생이었다. 하지만, 열 살 때 발병한 ‘망막색소변성증’이 더 진행돼 진로를 바꿨다. 이 병은 야맹증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다 결국 실명에 이르는 희귀병이다.

조씨는 현재 남아있는 시야가 10% 정

도밖에 되지 않아 학과 공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력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비장애인보다 몇 배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도 꿈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다.

“우선은 학업에 충실하면서 국제봉사도 다녀오고,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딸 생각이요. 또 비장애인들이 보는 글을 점자도 옮겨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역교정사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조씨가 춤에 대한 꿈도 모두 버린 것은 아니다.

“열두 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춤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배운 춤이 제가 빠져드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제 병이 진행성이어서 직업으로서는 적절치 않으니까 취미로만 하려고 하시더군요.”



요. 전공으로 했던 제2댄스 대신 댄스스포츠 국가대표가 되어 장애인 올림픽에 꼭 출전하고 싶습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섬마을 어르신들 손발된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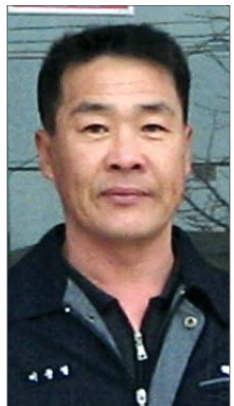
여수 집배원 이종열씨 나눔재단 ‘서답상’

“사랑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수에서 백길로 22km 떨어진 외딴섬 개도의 유일한 집배원 이종열(42)씨가 지난 28일 나눔문화재단의 서답(瑞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구름’이란 뜻으로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제정·수여하고 있다.

이씨는 400여가구가 거주하는 개도에서 지난 2001년부터 집배원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이 고령인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편물을 배달하며 틈틈이 어려운 이들의 손발이 돼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생필품을 대신 사다주고, 아플 때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보건진소에도 데려다 주기도 한다. 또



일급을 쪼개 소년 가장에게 쌀과 화용품을 챙겨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농사와 어업,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고,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소식원 역할도 하고 있다. 이씨는 “빛에 허덕이다 우연히 집배원이 됐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뿐이다”며 “육지에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 상을 받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복지관 식사봉사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회원(이사진 임내현) 20여명이 28일 광주시 장애인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들에게 식사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병원-베트남 의료 자매결연



전남대병원(왼쪽 김영진·앞줄 오른쪽)과 전남대의과대학이 최근 베트남에서 하노이대학 및 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순천경찰 ‘자체사고 없는 2000일’ 기념행사



순천경찰은 최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자체사고 없는 2000일 기념행사를 갖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 ▲광주 사대부중 4회 동창(회장 전성수) 정기모임=4일(금) 오후 6시 고향화(화정동 현대 아파트 버스 승강장 앞) 062-387-5523.
▲광주공업고등학교 28회 동창회(회장 류병원) 회장 이취임식=5일(토) 오후 6시 그랑시아 예식홀 3층. 011-628-3735.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풍수지리학의 올바른 길(선조 합동묘에 대한 무료공개 강좌)=7일

(월) 오후 7시 북구 중흥동 북구청 앞 (사)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062-511-2488.

모집

- ▲한사랑 재가복지센터(대표 한순복)=가정방문 요양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식사·취사·세탁·청소·간호·진료의보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수시상담 및 접수. 062-513-5654, 011-607-2200.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생활역학(명리학) 온라인·오프라인 수강생=3월 2일 개강. 생활역학(명리학)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 한국 철학대학평생교육원 행정실. 010-

8010-1777.
▲(사)인재육성아카데미 4기 교육생(http://midsarang.com)=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수료생 기업 취업률 82%, 기업실무, 구직실제훈련, 예비신입사원훈련, 서울오리엔티어링, 배낭구직활동, 품성교육 등 광주전남소재대학교 2~4학년. 062-224-7733.
▲국선도 두암수원원(원장 정무길)=면역력증강, 정기강화, 성인병 예방, 오장육부 강화, 기억력·집중력 배양, 난치병, 관절염 예방 치료. 수련생 수시모집. 062-351-3323.
▲비단향꽃무=천연수제삼푸, 탈모, 비듬, 두피가려움증, 아토피, 여드름, 건성피부, 천연비누 제조 수강생 수시 모집. 062-682-7384.
▲(주)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금남로 대리점 사원=건강과 아름다움을 주는 세계 1위기업 자연교육비 40만원 상당지원 062-227-6311~2,

011-620-6311.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주시실 위탁모=25~55세 이하로 막내가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양육용품 일체 지급. 광주시 동구, 남구, 북구 거주자에 한함.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062-227-8877)
▲탁주·약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조선대 평생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문의 조선대(062-230-7700), 호남대(062-370-8211).

부음

▲신체인지 별세 증해(광주 선관학교 교장)·종철(자영업)·종팔(자영업)·금자·금순·종민·종순·말순·종란씨 부친상 정영실(나주공고 교

사)·김영선(건축업)·김두복(MBC 기자)·박희민(삼성전자 과장)씨 부부상=발인 2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윤순례씨 별세 이동현·미란·행랑·정란씨 모친상=발인 2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명수씨 별세 영철·영관·영순·영자씨 부친상=발인 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항량(바로로·광주은행)씨 별세 지용·지삼씨 부친상=장례미사 2일(수) 광주 불산동 천주교회 장례식장. 062-671-8001, 010-3366-2368.
▲홍이표씨 별세 성욱(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은혜(상일중 교사)·성혜·혜원·정원씨 부친상 김철원(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조민호(패밀리농원 대표)·강삼구(현대차충청서비스)·김기중(전남일보 정치부 부장)씨 부부상=발인 1일(화) 천지 장례식장 202호. 062-527-1000.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人 민창식 님(남/74세)
故人 양철근 님(남/93세)
故人 박동원 님(남/84세)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人 송동성 님(남/79세)
故人 조맹태 님(여/91세)
故人 이애기 님(여/102세)
故人 남창현 님(남/87세)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